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 통합적 독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화제와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글을 비판적·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이다. 이때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는 독자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글을 비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독서 목적에 따라 선정한 글의 내용을 통합하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지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독서 목적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먼저 독자는 독서 목적에 따라 탐구하려는 주제를 정한다. 그리고 책의 제목이나 서평 등을 참조하여 주제와 관련 있는 책들을 찾아, 읽기 목록을 만든다. 그 다음에는 수집한 책을 빠르게 훑어보며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읽을지 파악하는데, 만약 읽을 글이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아예 읽기 목록에서 빼거나 다른 글로 교체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탐구하려는 주제를 구체화한다. 선별한 부분을 읽을 때는 꼼꼼히 읽되, 읽은 내용을 자기 말로 이해해야 한다. 자기 말로 이해한다는 것은 글에 나오는 핵심 개념을 탐구 주제와 연관 지어 해석한다는 것이다. 읽기가 끝나면 독자는 글의 내용과 형식, 글쓴이의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탐구할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성한다. 자신의 관점은 읽은 글에 나오는 특정 관점을 비판하거나 지지하여 구성할 수도 있고, 읽은 글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이미 읽은 글은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는데, 이를 위해 읽은 글의 한 부분을 인용할 수도 있다.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면 다양한 관점을 비교해 봄으로써 비판력을 기를 수 있고, 여러 글쓴이의 집필 의도나 관점을 파악해 가는 과정에서 추론력도 기를 수 있다. 또 여러 글을 편견 없이 읽어야 하므로 주제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생활 환경이 다양해졌고, 이로 인해 복합적 성격의 사회 문제가 증가했다. 이런 성격의 사회 문제는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문학, 자연 과학, 공학, 예술 등의 지식을 통합해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이런 점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역량을 기르는 독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1. **주제 통합적 독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탐구 주제를 구체화한 후에야 독서 목적을 확정할 수 있다.
- ② 글들을 읽기 전에 누구의 관점으로 읽을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 ③ 동일한 화제의 글을 읽을 때에는 형식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성할 때에 다른 관점의 글도 활용할 수 있다.
- ⑤ 읽은 글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용하여 글쓴이의 집필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 <보기>는 위글을 참고하여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한 학생의 독서록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나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바람직한 지도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다. 학교 도서관에서 지도자에 관한 책을 검색했고, 제목과 서평 등을 보며 군주론, 목민심서, 테레사 전기 등을 골랐다. 책을 빠르게 훑어보니 군주론의 시민을 다스리는 부분과, 목민심서의 백성을 교화하는 부분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지도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테레사 전기에서는 탐구할 내용을 찾지 못해 아예 읽지 않기로 했다. 선별한 부분을 꼼꼼히 읽어 보니 군주론에서는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반면에 목민심서에서는 인자하면서도 숭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었다. 두 글을 읽고 생각해 본 결과, 내가 학생회장이 되면 바로고 숭선수범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① 학생은 학교 도서관에서, 탐구하려는 주제와 관련 있는 책들을 검색하여 읽을 책을 선정하였군.
- ② 학생은 미리 만들어 놓은 읽기 목록을 책의 제목이나 서평 등을 보며 수정하였군.
- ③ 학생은 읽기로 선정한 책을 빠르게 훑어보며 꼼꼼히 읽을 부분을 선별하였군.
- ④ 학생은 두 글을 읽은 후에 탐구 주제와 관련한 두 글쓴이의 관점 차이를 비교하였군.
- ⑤ 학생은 특정한 관점을 지지하며 탐구 주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구성하였군.

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음으로써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정신적 여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독자가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복합적 성격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독자가 독서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독서 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독자가 한 편의 글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그 글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독자가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은 신화적 관점이나 중세 종교적 관점으로 역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을 배격했다. 이들은 이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고, 이러한 입장은 계몽주의자인 볼테르에 의해 ㉠확립되었다.

볼테르는 역사의 동인을 신으로 보았던 중세 시대의 관점을 비판하고, 이성에 의해 역사가 변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성과 자연, 이성과 종교·정치·사회 등의 제도가 상호 작용하면서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역사의 발전은 이성 그 자체가 발전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성의 발전사인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문화는 예술, 법, 정치, 지식, 과학, 풍속, 습관, 음식, 기술, 오락 등 인간 생활과 관련된 것들로 이성의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문화에 대한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를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이성의 발전을 드러내려고 했다.

볼테르는 모든 시대와 민족을 ㉡포괄하는 방대한 문화사를 서술했다. 이를 통해 이성이 모든 시대의 역사나 모든 민족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전 요소이며, 역사는 이성의 발전 과정을 드러내려 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료를 선택할 때는 이성의 업적을 보여 줄 수 있으면서 가장 확실한 기록에 기초를 둔 역사적 사실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역사를 서술할 때는 정치를 역사의 중심에 놓고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술이나 법과 같은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삼아 기술하는 화제 중심 체제의 방식을 사용했다.

역사가 이성의 발전 과정임을 드러내려는 볼테르의 의도는 이성의 발달에 따라 역사의 시대를 헬레니즘 문명의 알렉산드로스 시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대, 르네상스의 메디치가 시대,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로 구분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각 시대는 이성의 성숙과 완성 정도가 달랐다. 한 시대에 이룩된 문화의 성숙은 전승, 누적, 융합되어서 더 발전되고 성숙된 문화를 만들어 가며, 이는 다시 다음 시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루이 14세 시대는 메디치가 시대의 문화가 프랑스에 전승, 누적, 융합되어 성숙 및 발전을 이룬 것이었다. 그에게 루이 14세 시대는 이성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시대였다.

역사와 역사 서술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은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직선적 역사 발전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이성을 역사의 동인으로 보고 이성을 척도로 사료를 선택하고 문화사를 서술한 것에서, 세계 전체의 역사가 진전되어 가는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척도에 따라 각 시대를 평가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헤르더는 계몽사상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인식했다. 그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역사의

나선형적 발전을 주장하면서 볼테르의 입장과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역사 철학을 전개해 나갔다.

헤르더가 주장한 개체성은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에게 개체성은 민족의 개체성을 의미했다. 개체성은 기후와 풍토 및 관습 등에 근거해서 여러 지역의 인간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각 민족에게서 다양하게 형성된 것이며 각 민족의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민족이 추구하는 목표, 생활하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체성의 입장에서 그는 각 민족이 나름의 독특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여러 민족들 각각의 역사적 시대는 모든 민족의 역사 속 하나의 개체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각 민족의 역사적 시대는 고유한 위상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그 시대는 존중받아야 했다.

헤르더는 민족의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민족의 시대와 역사, 민족이 처한 환경적 조건 속으로 ㉣침투해서 이것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체성에 대한 그의 관점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방법에 따르면, 보편주의적인 관점으로는 역사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볼테르처럼 이성이라는 보편적 척도에 맞지 않는 역사적사건들을 무시하고 중세 시대를 역사 서술에서 제외해서 로마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지게 하는 일은, 헤르더의 역사 설명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헤르더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역사가 연속적 성격을 가지면서 나선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역사 서술에서 중세 시대를 제외한 볼테르의 입장과 달리, 헤르더는 중세를 계몽사상 시대의 도래를 위한 준비기였고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로 이해했다. 그리고 역사가 나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그의 주장은 역사가 성장과 파괴, 건설의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볼테르의 직선적 역사 발전관과 다른 것이었다. 헤르더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의 파악과 역사 서술의 기본 단위는 민족이며 역사는 민족의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헤르더는 문화적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사상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서술되어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시대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응되는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논쟁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사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나)는 특정 사상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볼테르는 이성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볼테르는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역사를 서술했다.
- ③ 헤르더는 중세 시기가 없으면 근대 시기가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다.
- ④ 헤르더는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을 수용하여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펼쳤다.
- ⑤ 헤르더는 특정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에 대한 선입관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6. '볼테르의 직선적 역사 발전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성이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 ② 인류 전체의 역사가 후퇴와 단절 속에서도 연속하여 진전되는 것이다.
- ③ 역사가 발전하는 원인은 신의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 ④ 역사 서술의 발전은 역사를 신화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 ⑤ 전 세계의 문화사를 서술하여 역사에서 이성이 변화하지 않고 정체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7. 윗글의 '볼테르'와 '헤르더'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볼테르는 4개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보다 문화가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 ② 헤르더는 서로 다른 민족 문화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는 특정 기준은 없다고 보았다.
- ③ 헤르더는 각 민족의 문화는 자신이 처한 기후와 풍토에 따라 동일하지 않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 ④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 문화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⑤ 볼테르에게 이성의 활동은 문화를 통해 드러나고, 헤르더에게 개체성은 각 민족의 문화에서 드러난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한편,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해 주었던 알렉산드로스의 사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서지중해 일대를 장악한 로마에 의해 멸망되었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유능한 다섯 황제까지 약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렀다. 광대한 제국이 된 로마는 법률, 건축, 토목과 같은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특히 법률이 발달하였다. 로마는 2세기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몰락했다. 이후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다.

- ①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에서 발달한 법은 이성의 발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료이겠군.
- ② 헤르더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가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한 것은 각 민족의 개체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 시대에서 아우구스투스 시대로 변화된 것은 역사의 발전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볼테르와 헤르더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로마에 의해 멸망된 것은 문화의 퇴보와 파괴가 나타나는 역사적 과정이겠군.
- ⑤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세 시대는 역사 서술의 대상이 아니고, 헤르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역사 서술의 대상이겠군.

9. 문맥상 ㉠ ~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바로잡혔다
- ② ㉡ : 벌여 놓는
- ③ ㉢ : 물러나
- ④ ㉣ : 돌아가서
- ⑤ ㉤ : 이바지했다고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인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민을 간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미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민 사회를 이루고 있다. 한국계 이민 사회의 중요한 직업적 특징 중의 하나는 다른 민족에 비하여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이 자영업을 하는 비율은 미국인 전체 평균보다 70% 정도 높다.

한국계 이민 사회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 능력의 한계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런데 이민 1세대 한국계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과 교육 수준이 자기기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임금 노동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이 주류 사회의 직장에 취업할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고, 비록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높다고 하나 한국에서 이들이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증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주류 사회의 선호 직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주류 사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는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회피하거나 떠나 버린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소수 민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이나 노동 집약적 사업 등이 있다. 이런 성격의 자영업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사업상의 특징을 이룬다.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사업 준비와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민족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적 자원으로 첫째, 한국계 이민자들은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 둘째, 이들은 가족 관계가 온전히 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임금의 가족노동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적 자원으로는 교육과 자본 조달 능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받은 높은 교육 수준은 비록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업체 운영의 기초 능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이룩한 사회적 배경은 일정한 개인 저축과 용이한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계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소규모 개인 사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중간 상인 이론'이다. 중간 상인 집단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 구조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소유주와 세입자, 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민 사회 형성 초기에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은 대도시의 빈민 지역에서 소규모 상점을 운영했다. 한국계 이민자 소유 사업체들은 주로 소득이 낮은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중간 상인'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의 상품 공급자, 건물주, 정부 기관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한국계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와의 갈등에 대처하고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계 소매상 단체를 설립하는 한편, 경비 절감과 구매 협상력의 강화를 위하여 유통 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결합하는 '수직적 계열화'를 실시하였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한국계 소매상들은 유력한 한국계 도매상을 중심으로 주문을 하나로 모아 좋은 가격으로 공급자와 협상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수직적 계열의 관리자로부터 외상 공급, 창업 자금 대출 등과 같은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직적 계열화의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네트워크에 너무 많은 한국계 소매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소수의 상품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시장 포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 끼지 못한 다른 민족들이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수직적 계열화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업 기회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수직적 계열화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계 이민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계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자본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사업체에서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10. 밑글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
- ② 가족 관계를 이용한 인력 조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 ③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쉬웠다.
- ④ 영어 능력의 한계로 직업 선택에 한계가 있었다.
- ⑤ 주류 사회의 선호 직업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11. 밑글의 '중간 상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간 상인 역할은 높은 이익을 보장하였다.
- ② 상류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을 거래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③ 중간 상인 역할은 소비자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 ④ 중간 상인 역할을 위해 큰 규모의 자본 조달이 요구되었다.
- ⑤ 중간 상인 역할의 어려움에 대응할 때 민족적 자원을 많이 활용하였다.

12. 밑글에서 **수직적 계열화**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경쟁이 완화되어 한국계 자영업자 간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 ② 주류 사회의 상품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었다.
- ③ 타민족 자영업자를 포용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였다.
- ④ 일정 지역에서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 ⑤ 생업을 위한 노동 시간이 감소하였다.

1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김 씨'는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고학력자였으나, 언어 장벽과 학력 불인정 문제로 주류 사회의 전문직 취업에 실패했다. 그는 결국 저소득층 라틴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임금을 아끼기 위해 부인과 함께 하루 14시간씩 일했으며, 한국인 소매상 단체에 가입하여 경영 정보를 공유받았다. 또한 유력한 한국계 도매상과 유통 과정을 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물건을 공동 구매하며 사업을 안정시켰다.

- ① 김 씨가 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한 것은 사업 운영에 '개인적 자원'을 적절히 투입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② 김 씨의 학력이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가 가진 교육 수준이 세탁소 운영과 같은 실무적인 사업체 운영 능력으로 연결되지 못했음을 의미하겠군.
- ③ 김 씨가 라틴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업지로 선택한 것은, 주류 사회 구성원이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피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려 한 전략이겠군.
- ④ 김 씨가 한국인 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것은 수직적 계열화의 혜택을 입은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었겠군.
- ⑤ 김 씨가 참여한 유통 네트워크는 주변의 다른 민족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존(O₃)은 산소 원자(O)와 산소 분자(O₂)가 결합하여 생성된 것으로, 희석하여 소독제로 사용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지상 대기 중에서는 식물의 엽록체와 인간의 폐 조직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오존은 생명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상층 대기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상에서 오존은 질소 산화물이 강한 태양 광선을 받아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질소 산화물은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며, 대부분 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₂)의 형태로 배출된다. 산화질소는 오존과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산소 원자와 결합하여 보다 안정된 이산화질소로 전환된다. 이산화질소는 태양 광선을 받으면 다시 산화질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된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을 만든다.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에 탄화수소가 촉매로 작용한다.

상층 대기의 오존은 주로 저위도의 성층권 하층에서 생성된다.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받아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분해된 산소 원자가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가 촉매로 작용한다. 성층권은 최하부 대기층인 대류권의 상공으로부터 50km에 이르는 대기층인데, 공기의 연직 순환이 활발한 대류권과 달리 상층일수록 기온이 높아서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성층권의 기온은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양에 비례한다. 오존은 성층권의 최하층에 대부분 존재하는데, 이 층을 오존층이라고 한다. 오존층 파괴는 항공기 운행과 핵실험 과정에서 배출되는 산화질소의 영향도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함께 주요 온실 기체로 ㉢분류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CF₂Cl₂ 또는 CFCl₃)에 주로 기인한다. 1920년대 말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는 매우 안정하여 대류권 내에서는 햇빛에 노출되어도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대기 대순환 과정을 통해 지구 대기 전역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다. 프레온 가스는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되어 염소 원자(Cl)가 방출된다. 염소 원자는 오존과 화학 반응하여 산화염소(CIO)를 생성하고, 산화염소는 다시 산소 원자와 화학 반응하여 염소 원자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존이 ㉣파괴된다.

햇빛이 매우 약한 겨울철 남극 상공의 하부 성층권에는 바람이 강하게 회전하는 거대한 원형의 소용돌이가 형성된다. 그리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 프레온 가스와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저위도로부터 소용돌이 내로 유입된다. 소용돌이로 유입된 공기 속에 존재하던 수증기는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데, 이때 프레온 가스가 얼음 결정 속에 포집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겨울 동안 소용돌이 내에는 프레온 가스를 포함한 얼음 결정이 계속 적체된다. 봄이 되어 이 지역에 햇빛이 들면 소용돌이는 세력이 약화되어 와해되는데, 이때 얼음 결정이 녹으면서 포집되어 있던 프레온 가스로부터 염소 원자가 공기 중으로 빠르게 방출

되어 오존을 집중적으로 파괴한다. 남극의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 가스가 개발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프레온 가스가 남극 상공까지 수송되어 축적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편, 북극의 소용돌이는 남극만큼 강하지 않아 그 모양이 구불구불하여 소용돌이 내의 공기와 주변 공기 간에 혼합이 많이 일어나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오존층 파괴가 남극보다 덜하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성층권의 기온은 오히려 ㉔하강하게 되어 남극의 소용돌이뿐만 아니라 북극의 소용돌이도 더욱 강해지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한다. 대기 중에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대류권에서는 온실 기체가 기온 상승을 가져오지만, 성층권에서는 성층권 특유의 열적 구조로 인하여 오히려 기온을 하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㉑지구 온난화에 수반되어 극지방 소용돌이의 강도 변화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오존층 파괴의 양상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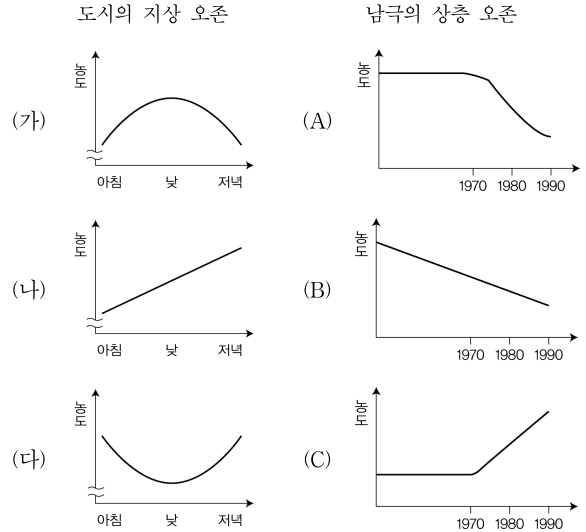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질소와 산소가 지상 오존 발생에 촉매로 작용한다.
- ②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 파괴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 ③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 가스 배출이 많은 지역의 상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 ④ 성층권에서 오존을 만드는 산소 원자는 주로 산화염소가 분해되어 생성된다.
- ⑤ 성층권에서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고도와 기온이 가장 높은 고도는 일치한다.

15. ㉑과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가 시작되는 시기는 봄 이후로 늦어진다.
- ②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감소되며 소용돌이 강도는 더 커진다.
- ③ 소용돌이 내에 농축되는 프레온 가스 양은 감소하게 된다.
- ④ 북반구의 자외선 강도가 남반구에 비해 더 커진다.
- ⑤ 북극 소용돌이의 형태는 더욱 구불구불해진다.

16. 도시의 지상 오존 농도와 남극의 상층 오존 농도의 변화를 바르게 나타낸 것끼리 묶은 것은? [3점]



- | | | | |
|---|--------------|--|--------------|
| | 도시의 지상 오존 농도 | | 남극의 상층 오존 농도 |
| ① | (가) | | (A) |
| ② | (가) | | (B) |
| ③ | (나) | | (B) |
| ④ | (다) | | (A) |
| ⑤ | (다) | | (C) |

15. 문맥상 ㉔ ~ ㉑와 바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 포집하여
- ② ㉔ : 상이하게
- ③ ㉔ : 비교되고
- ④ ㉔ : 생성된다
- ⑤ ㉔ : 올라가게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사를 한다던?”

“안 돼요, 이사는. 이젠 죽어도 이산 할 수 없어요. 날 여기 혼자 두고 가든지 말든지 하세요. 난 다시는 이삿짐을 꾸리진 않겠어요.”

“무슨 소리아?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아? 날더러 죽으란 소리나 마참가지야.”

“그래도 안 돼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 마을만 하더라도 옮겨 산 게 몇 번이예요?”

이 집까지 치면 세 번째였다. 불들네에서는 구식 마구간에다 방 두 칸을 들여 세를 살았었다. 내 방은 평 반 남짓한 골방이었다. 간신히 발을 뺄 수 있었고 넓이는 그것이면 족했다. 거기서도 문제는 방음이었다. 내 딸아이와 합쳐 아이들이 넷이었다. 아이들이 점점 무서워졌다. 만상은 아이들의 해살곳은 얼굴과 껍뻍이는 아이들의 오리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으레껏 아내거나 딸아이가 피해를 입었다. 느닷없는 나의 신경질과 고향에 아내는 어쩔 바를 몰라 흐느꼈고 죄 없는 딸아이가 짜리뻬에 맞아 경기를 했다. 나는 점점 더 난폭한 정신병자가 되어 갔던 것이다.

“그래? 죽어도 이삿 못 하겠단 말이지? 이 동네가 그렇게두 좋아?”

“누가 좋다고 그랬나요?”

“그럼 뭐야?”

“이 동네에 들인 공이 아까워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네 장담의 당당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지도 오래였다. 게다가 이제 갓 깡깡깡 우는 뱀을 배우기 시작한 장끼놈은 불들네의 개가 쳐들어와 물어 죽여 버리고, 까투리는 목 너머 마을 양계장 집 누렁이가, 이제 남은 것은 이천의 조각하는 강 형한테서 얻어 온 호로새 한 쌍과 집에서 놓아 먹여 기르는 암탉 한 마리뿐이었다. 뒤란 꽃사과나무 아래 평장은 뜬여 발겨진 꿩 털이며 깔짚이 너저분하게 엉겨 흐트러져 있어서, 거길 들여다볼 때면 마치 시달리다 치쳐 버린 나 자신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보는 것마냥 끔찍스러웠다. 술이 억병으로 취한 불들 아버지가 우리네 장담 모가지를 탁 틀어쥐고 꿈지며 날갯죽지의 깃털을 몽땅몽땅 쥐어뜯으면서, 그걸 잡아먹겠다고 동네방네 고향을 치며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이미 내 마음에는 작정이 서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아내에게 나는 말했다. 끔찍한 동네야. 저게 소위 한 작가를 대접하는 이 사회의 한 가지 방식이야.

“에미, 넌 내가 글 한 줄 제대로 못 쓰고 이 집에서 정신병자가 되어 미쳐 나가도 좋단 말이지?”

“왜 미친단 말예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집에서 물러서란 말예요?”

“글렀어, 이젠. 더티 플레이를 예사로 하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네들이 아니야. 에미야, 넌 지금껏 내가 어떤 일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내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

“㉠ 알고 말고요. 그걸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길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아. 문제가 뭘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 보자구.”

“이사하는 데 따르는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 그렇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우선…….”

우선 당장 그림의 산월(産月)이 다 돼 간다는 게 아내로서는 큰 고통거리일 것이었다.

“에는 이삿 해서도 낳을 수 있어. 꼬짝도 말고 앉아 있어. 이삿짐 꾸릴 때 밥 식기 하나 챙기지 않아도 좋도록 내가 조처해 줄 테니까. 의사들은 괜히 유산될 거라느니 어쩌느니 겁주는 거야.”

“그런 건 문제도 안 돼요……. 이 집에 이사 온 지 대역섯 달밖에 안 됐어요.”

“㉢ 알아. 수리비 얘기겠지?”

“빠아프게 밤잠 안 자고 글 써서 번 돈이예요.”

집 수리비 관계로 이사 들기 전에 안주인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집이 너무 낡았으니 수리비의 반 정도를 부담해 달라는 게 우리 쪽의 요구였고,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는 게 안주인의 주장이었다. 하는 수 없었다. 이사 들기 전에 장작 부엌을 새마을보일러로 고치고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쳤다. 터진 곳은 때우고 바랜 곳은 수성 페인트를 바르고 마당을 시멘트로 입히고 도배를 해 올리니 집의 면모는 일신했다. 대문간에 현판을 달았다. 그 이름 ‘청정재(淸靜齋)’, 아내가 좋아하는 청결과 나의 비원인 조용함을 강조한 현판이었다. 대청마루의 굽은 기둥에다 ‘淸潔 靜肅’이라 크게 써 붙이고 정씨의 건년체 미달이 위에다는 그의 이름을 따서 ‘眞生堂’이라 올려다 붙였다. 그의 병든 아내를 위해서는 그 아래 문틀에다 ‘願 至福’이라 써 올렸다. 지금에 이르러 나의 그 필적들을 쳐다보기란 끔찍한 일이었다.

“우리가 나간다면 집주인은 얼씨구나 할 거예요. 집수리까지 깨끗하게 해 났으니 전셋돈을 아마 백만 원은 더 올려 받으려 들 거예요.”

“우리가 반년도 안 돼서 못 살고 나가게 됐으니, 주인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셈치고 수리비 삼십만 원의 반이거나 삼분지 일만이라도 내놓으라고 때를 써 볼까?”

“그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데요? 계약서를 들먹일 거예요.”

“㉣ 그렇지, 계약서.”

“수리비는 그렇다 치고 송아지는 어떻게 참이예요? 마구간까지 어렵사리 해서 세를 얻어 났는데 이제 와서 소 키우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놈의 송아지였다. 그건 미래의 우리들 크나큰 희망이었다.

“글쎄, 마구간이 딸린 집을 구할 수가 없을까? 저 안골이니 월문리 같은 데 말이야.”

“다 다녀 보지 않았어요? 마구간 딸린 집이 그리 쉽던가요? 그런 데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눌러앉은 것 아녜요.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우린 이 고비를 이겨 나가야 해요.”

“㉤ 알아. 내가 그 빌어먹을 잡문 공포(雜文恐怖)에서 해방되

는 것도, 또 말라빠진 여성지 연재 따위를 안 해도 되는 것도,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한 지붕 밑에서 지지고 볶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도…… 저것들을 키우고 불리고 다시 키워서, 어떻게 어떻게 다시 시작해 보겠단 일념에서였지. 알아.”

연재가 끝나면 글쓰기를 당분간 접혀 두고 직장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도 송아지를 키우고 늘리기 위해서였다.

- 박영환, 「지상의 방 한 칸」 -

18. ㉠~㉥에 반영된 인물의 심리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 : 상대방에 대한 태도의 변화
- ② ㉡ :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각
- ③ ㉢ : 난관을 타개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 ④ ㉣ : 자신의 상황 인식에 대한 확신
- ⑤ ㉤ :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의 인정

19. [A]로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것은?

- ① 주인공이 이사를 하려는 배경
- ② 주인공이 겪고 있는 사건의 긴박함
- ③ 동네 사람들과 주인공의 소원한 인간관계
- ④ 주인공이 농촌 생활에서 받은 정서적 충격
- ⑤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성격

20. 작가로서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사에 대해 아내와 생각이 다른 것은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아내와의 견해차를 보여 주는 것이다.
- ② 진정한 글쓰기를 원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작가적 사명감을 잃지 않으려는 내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것은 작품 활동을 가능하게 할 조건을 찾는 작가의 바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④ 동네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것은 작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 ⑤ 여성지 연재를 해야 하는 것은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가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21.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에서 '집'은 작가인 서술자가 창작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인 동시에, 빈곤이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서술자는 '청정재(淸靜齋)'라는 현판을 통해 소음과 무질서로부터 격리된 정결한 삶을 지향하지만, 이웃과의 갈등이나 집수리비 문제 등은 그의 의지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내에게 '송아지'는 현재의 궁핍을 견디게 하는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며, 이는 지식인 남편의 이상주의와 대비되는 생활인의 강인한 생존 본능을 드러내는 소재로 기능한다.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집 기둥에 淸潔 靜肅(청결 정숙)이라 써 붙인 것은, 무질서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군.
- ② 평장이 뜯겨 발겨진 풍경을 보며 '나 자신의 내면 풍경'을 떠올린 것은, 갈등으로 인해 서술자의 정신적 세계가 심하게 훼손되었음을 암시하는군.
- ③ 아내가 '이 동네에 들인 공'을 강조하며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집수리에 투입된 노동의 결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활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주는군.
- ④ 서술자가 '잠문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해 '송아지'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통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타협안으로 볼 수 있군.
- ⑤ 서술자가 정씨 부부의 방에 '진생당'과 '원 지복'이라 써 붙인 것을 '지금에 이르러 끔찍한 일'로 느끼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비정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①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묘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②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③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나)

④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⑤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

(다)

1

⑥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날날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발육 위에는 앙상한 가지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역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둠과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렁던 잔디가 파이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⑦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물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은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 한혹구, 「보리」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3.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헐어진 성터'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벗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뱀'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2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의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 애고기도 뉘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다.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짚고 월령산 ㉢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A] 옷에 무수한 이슬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

“㉣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 보랴.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만은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며 삼고초려한 유황 속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니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 왈, “봄날이 심히 곤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앉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어떤 사람이관데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왈,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랴.”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앉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홍망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승상의 ㉤명감(明鑑)*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한 동자 마중 나와 물어 왈,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 답 왈,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뉘신고?”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이까? 들어가 보시면 자연 알리이다.”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줏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일러라. 생이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왈,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며 왈,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하고 감주 한 벌을 내어 주며 왈,
“이 감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생이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 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홍금포로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왈,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알아 무엇 하리오?”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 서너 잔 마신 후에 승상 왈,
“이제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으니 만 리 청총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건잡지 못하리라. 하나 적을 가뻐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은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 왕이 되어 중원을 침노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삼가 조심하라.”
“만 리 청총마를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리까?”
생이 묻자, 승상이 답 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머물지 말고 바빠 가라. 할 말이 끝없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고 책상을 의지하여 누우시니 생도 잠깐 졸더니, 홀연 찬바람,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 놓였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소나무 밑이라.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조대 : 낚시터.
* 명감 :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능력.

27.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B]는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28.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 ②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 ③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 ④ '청충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버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 ⑤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군.

29. <보기>를 참고할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에서 공간은 산속이나 동굴 등 특정 현실 공간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특정 현실 공간에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초월적 존재의 등·퇴장과 관련된다. 한편 어떤 인물이 꿈을 꿀 때, 그는 현실의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꿈속 공간을 경험한다. 이 경우, 특정 현실 공간이 꿈에 나타나면 이 꿈속 공간은 특정 현실 공간에 근거하면서도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 ① '승상'은 ㉠에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정신은 봄바람에 이끌려 ㉡로 나아갔으니, 그는 현실의 한 공간에서 잠들어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군.
- ② ㉢는 ㉣에 근거를 둔 꿈속 공간으로, ㉠에서 본 '청룡'은 ㉣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징하는군.
- ③ ㉢와 ㉣는 모두 초현실 공간으로, ㉢는 '승상'을 '아이'에게로 이끌기 위해, ㉣는 '소생'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을 위해 설정된 곳이군.
- ④ ㉢는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고, ㉣는 '소생'이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군.
- ⑤ '승상'이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에 ㉠가 겹쳐져 있었지만 '승상'이 사라지면서 ㉠도 함께 사라졌군.

30. ㉠의 화자에게 ㉡를 지닌 '승상'이 격려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 푸셔도 됩니다.)

- ① '굽벙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듯이, 네 재주로도 할 일은 있을 터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라.
- ② '자루 속의 송곳'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너의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될 거야.
- ③ '장마다 꼴뚜기가 나올까'라고 하듯이, 운수가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 보아라.
- ④ '차면 넘친다'라고 하듯이, 지금 너의 괴로움은 욕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것이니 욕심을 줄이면 나아질 거야.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듯이, 너의 용기는 무모하니 현실을 직시하면 성공할 날이 곧 올 거야.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학년도 6모)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의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어난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곱아라 고평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춧빛 호장*
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끝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머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娥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려지이다
- 조지훈, 고평 의상 -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가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환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얼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 부연(附楸) : 긴 서까래 끝에 덧없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 호장 : 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갈 있는 형질으로 꾸민 것.
* 초마 : '치마'의 방언.

31.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32.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33.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소재와 에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34.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통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 줌 뺏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꽁꽁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